

- 본문 : 신명기 1장 29~33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 본문 읽기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가?(히11:6)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의 수준은 과연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첫 번째 율법’이고,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다.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설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 디모데후서 2:8
* 고린도전서 11:24
2.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사건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과 원망의 결과가 40년 광야의 방황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바로 입성과 40년 광야 방황 사이의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본다. 이처럼 인생을 방황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과 같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당신의 인생에도 있는가?
3.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 수 있는가?
* 신명기 1:36
* 히브리서 11:6

·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때 대충 믿고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철저하게, 절대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한 후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며 서로 중보기도하라.

· 말씀기도제목

1.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2. 약속의 축복과 방황의 분수령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선택하라!」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